

245

245

녹색성장시대와 함께 하는 녹색스포츠 파크골프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전영창 | 전무이사
(국민생활체육 전국파크골프연합회)
IFPRA 한국대표위원

“파크골프”라는 단어를 보면 골프를 변형한 스포츠라고 알 수 있지만 익숙하지는 않은 단어이다. 하지만 단어를 풀어 보면 파크(Park) + 골프(Golf) = Park Golf, 즉 공원에서 즐기는 골프라는 것을 쉽게 이해가 되는 단어이기도 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파크골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제도 늘어나면서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파크골프의 이해

파크골프는 주로 도시공원과 체육공원에 조성되는데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인 공원(PARK)에 골프(Golf)의 게임요소를 합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를 포함한 3대의 가족, 연인, 직장인, 장애인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재편성한 커뮤니케이션 스포츠이다.

녹색스포츠의 대표적 종목인 골프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싼 이용료와 장비, 기술습득의 어려움, 긴 경기시간 등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해 진정한 대중적 생활체육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러나 파크골프는 잔디가 있는 소규모 공원이나 하천부지에서 클럽 1개, 볼 1개, 볼을 놓는 티(TEE)만 있으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스포츠이다.

파크골프는 환경적, 국민복지,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환경적 측면

새로운 녹지조성과 기존녹지(공원 등)의 다기능화로 환경 친화적 공간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 농촌미관을 확보한다. 파크골프장은 기존의 공원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농약을 사용하여 친환경스포츠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

국민복지

파크골프는 노인,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일반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 시설과 복지시설로의 역할을 한다. 실비 수준의 비용 부담으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노인 및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한다.

지역공동체

파크골프는 지역의 새로운 테마체육공원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간 인적 교류증진 및 동호인과의 다양한 여가 활동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한다.

● 파크골프의 한국도입

파크골프는 기술의 난이도가 비교적 낮고 비용이 저렴하여 일본에서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파크골프의 발상지인 북해도에만 동호



3대가 함께 즐기는 스포츠



회원 수가 약 90만 명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1,300여개의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질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한국에서의 파크골프 보급은 1998년 진주노인복지회관과 보광피닉스파크에서 최초로 소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것이 시초이며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파크골프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에 조성된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한강파크골프장 개장을 시작으로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개가 운영되고 있다. 아직은 일본과 비교하면 시설측면에서 보잘 것 없지만 급변 서울시 난지도 노을공원에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으로 인하여 더욱 빠르게 보급되리라 예상이 된다.

● 파크골프장의 구성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파크골프는 기존 골프장 면적의 약 1/50 축소판으로 이해하면 쉽게 상상이 갈 것이다.

파크골프에 사용되는 경기 도구는 파크골프클럽, 플라스틱공, 고무 티로 간단하게 이루어져있다. 드라이버 샷에서부터 퍼팅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클럽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파크골프장의 면적은 약 20,000㎡(약 6,000평)로 통상 18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긴 홀은 100m이고 가장 짧은 홀은 30m정도 이다. 일반 골프와 같이 홀의 길이에 따라 PAR3, PAR4, PAR5로 구분되어 있으며 18홀 전체의 합계가 66PAR로 구성되어 있다.

파크골프장에는 경기의 난이도와 재미를 위하여 벙커, 해저드, OB등이 있다.

부부가 함께 즐기는 파크골프



CLUB HOUSE

PARK GOLF COURSE

4월 개장 예정인 월드컴공원 파크골프장

● 파크골프의 장비

클럽(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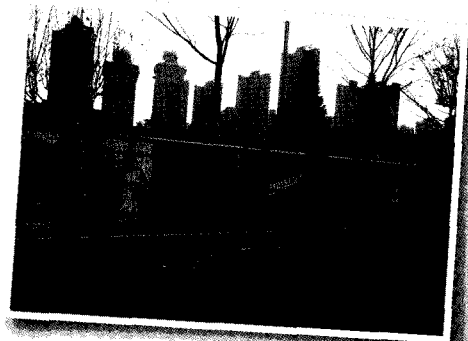
중량 600g이하, 길이 86c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로프트 각은 수평인 면에 수직으로 세웠을 때, 타구면의 각도가 수평에 대해서 90도 이하여야 한다.

볼(ball)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로 중량 80~95g, 직경±0.5mm인 것을 사용하며 흰색, 적색, 황색, 청색 등 색깔이 다양한 공을 사용한다. 볼의 표면은 매끄럽다.

티(Tee)

티는 샷을 할 때 볼을 올려놓은 받침대로 각 홀에서 제1타를 이용하고, 재질은 특별히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통 연질의 고무 티(Rubber Tee)가 안전하고 최적이다.



지역커뮤니행사

● 파크골프의 5가지 입증된 효과

건강효과

18홀 기준으로 걷는 거리가 약 1.5km로 가볍게 산책을 할 수 있으며 팔의 근육을 사용하고 잔디라고 하는 자연친화적 요소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파크골프로 인하여 지역의 노인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됐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병원에도 파크골프를 이용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파크골프 참여로 편한 숙면, 허리통증 해소, 발통증 해소, 근력재활 등 노인들의 심신건강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관광효과

최근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각종 대회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많은 스포츠 마니아들이 참가하고 있다. 대회에 참석한 매니아들은 숙박, 현지 농산물과 특산물을 구입한다. 현지 주민들은 이로 인하여 새로운 수익을 얻는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앞을 다투어 유명대회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연간 약 3천억 원의 파크골프 산업시장이 만들어졌으며 매년 15%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파크골프를

즐기는 동호인 수가 약 150만 명이고 파크골프장이 1,000여개, 스포츠용품 브랜드가 17개, 매년 개최되는 크고 작은 이벤트와 대회가 400회, 광고주,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설계회사와 시공회사, 관리회사 등이 파크골프 산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교육효과

파크골프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좋은 스포츠교육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흔히 골프는 매너스포츠라고 한다. 그만큼 골프를 즐기면서 매너를 지키고 자기 스스로가 심판이 되어 게임을 하기 때문이다. 파크골프는 기존의 골프와 게임방식이 크게 틀리지 않다. 또한 시설규모가 작을 뿐이지 골프의 구성요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 스포츠교육을 하기에는 아주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서울의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초등체육교육에 파크골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파크골프가 학업에 지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연친화적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 효과

파크골프장은 오픈 된 공간이다. 경기를 하다보면 다른 팀과 쉽게 가까워 질 수 있다.

요즘 조기 퇴직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정년퇴임 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지만 파크골프장에서는 쉽게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다.

가족, 이웃, 동료, 장애인이 함께 경기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스포츠를 통해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할 수 있다.

경제효과

최근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코스는 자연경관이 살아있는 파크골프장을 많이 선호한다. 이용료 또한 다른 파크골프장보다 높다. 자연경관이 좋은 파크골프장 대부분은 목장, 산림, 농장 등을 이용하여 조성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노년층과 가족이 많이 찾는다.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를 마치고 바비큐를 한다든가 다른 팀과 내기시합을 하는 모습은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파크골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골프를 치는 사람들에 대해 그리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졌었지만 파크골프를 통하여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잔디 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잔디가 주는 풍요로움과 파크골프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모든 스포츠는 종목별로 매력을 가지고 있다. 파크골프의 가장 큰 매력은 좋은 잔디밭에서 약 2시간동안 마음껏 걷고 쾌감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의 특성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0년 1월 현재 전국적으로 10개의 시도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12월 5일에 전국연합회인 한국파크골프연합회(www.kpca.or.kr)가 창립이 되어 파크골프 발전에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